

인어공주와 수영 영웅의 '황금빛 물보라'



100m 턱하니 내가 맨앞... 눈물 펄펄

"엄마 아빠 사랑해요. 평소에 말도 잘 안 들었는데."

여자 수영 간판 정다래(전남수영연맹)는 터져 나오는 눈물 때문에 말을 잊지 못했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여자 평영 200m에서 금메달을 딴 감격을 이기지 못해 인터뷰 내내 통곡에 가까운 눈물을 흘렸다.

정다래는 17일 광저우 아오터 아쿠아틱센터에서 여자 평영 200m 결승에서 1위로 끝인한 직후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처음 따봐서 눈물이 난다"라며 감격했다.

정다래는 "금메달은 생각하지도 못했다"라며 "100m를 턱하니 돌아섰는데 앞에 내 앞에 아무도 없길래 우승할 수도 있을 것 같

여자 수영 12년만에 금메달 딴 정다래

다는 예감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정다래는 경기 직후 풀장 옆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정도로 줄곧 흐느끼기만 했다.

정다래는 한국 여자 수영의 간판이다. 부영여고에 재학 중이던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지난해 로마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해 모두 준결승까지 올랐던 한국 여자 대표팀의 에이스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실력보다 위도모만 기억하려 했다. 정다래는 베이징 올림픽 여

자 평영 200m 준결승에서 레이스를 마친 뒤 전광판의 기록을 확인하고서 레인에 기대 실망스러워하던 잠직한 모습 때문에 네티즌 사이에 '얼짱 스타'가 된 뒤로 실력보다는 위도모 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여수구봉초-문수중을 거쳐 올해 부영여고를 졸업한 정다래는 2008년부터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다. 영동하면서도 푼 푼 뛰는 말과 행동으로 대표팀 내에서는 '4차원 소녀'로 통했다. 그녀는 하지만, 주 종목인 여자 평영 100m와 200m에서 국내 최강자다. /연필뉴스

반환점 5위서 1위 골인 짜릿한 역영

AG 첫 2연속 3관왕 오른 박태환

"반환점을 5등으로 둔 줄도 몰랐어요. 정신이 없어서 빨리 가고만 생각했지요."

박태환(21·단국대)이 17일 중국 광저우 아오터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자유형 100m 결승에서 48초70의 한국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 대회 3관왕에 올랐다. '마린보이'를 넘어서 세계 수영 최강자 반열에 올라 '청년 영웅'이 됐지만, 겸허한 승자의 모습을 잃지 않은 것이다. 이날 오전 예선에서 49초88의 기록으로 전체 1위를 차지해 8명이 겨루는 결승에 오

른 박태환은 4번 레인에서 물살을 갈았다.

5번 레인의 스타페이와 3번 레인의 루즈우 등 중국 선수 사이에 끼어 레이스를 펼쳤지만 박태환의 역영을 가로막을 선수는 아무도 없었다.

박태환의 출발 반응 속도는 0.69초로 루즈우와 같았다. 박태환은 초반 50m 구간에서는 24초02로 5위를 차지했다.

루즈우가 23초71로 50m 구간을 가장 먼저 돌았다. 박태환은 루즈우에게 0.31초가 뒤졌다. 50m 구간을 돌자마자 박태환이 특

유의 폭발적인 스피드로 경쟁자들을 하나씩 따라잡았다. 결국 결승선을 20여m 정도 남기고 1위로 나서더니 가장 먼저 레이스를 마쳤다.

한편 외신들은 이날 "박태환의 기록은 포스트-이안 소프, 포스트-점단수영복 시대의 기준이 될 것이다"고 보도했다. 박태환의 이번 대회 자유형 400m 우승기록은 올해 세계 랭킹 1위인 3분41초53로 올림픽 수영 5관왕 이안 소프(호주)가 최첨단 소재의 수영복을 입기 전 세운 세계 최고 기록에 근접했다는 것이다. 소프는 2002년 영국 맨체스터 영연방 대회에서 3분40초08으로 세계신기록을 작성했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정구 남자 단식 한국 금·銀 독식

고흥출신 이요한, 동료 배환성 꺾고 우승

한국 선수끼리 맞붙은 정구 남자 단식에서 고흥출신의 이요한(20·대구카톨릭대)이 금메달을 차지했다.

한국 정구대표팀 막내인 이요한은 17일 중국 광저우 텐허 테니스클럽에서 열린 광저우 아시안게임 정구 남자단식 결승에서 룸메이트 배환성(25·이천시청)을 4-2(4-2 4-0 1-4 5-3 1-4 4-2)로 꺾고 우승했다.

준결승에서 일본의 나가모토 게이야를 접전 끝에 4-3(3-5 2-4 4-2 2-4 4-1 7-5 7-2)으로 따돌린 이요한은 결승에서 1, 2게임 모두 이기며 초반부터 승기를 잡았다.

정구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된 1994년 히로시마 대회 이후 한국의 남자단식 금메달은 2002년 부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고흥 점초초 4학년때 정구를 시작한 이요한은 광주 동신중·고를 거쳐 2007년 주니어 대표로 선발됐다.

이요한을 지도했던 동신고 구자연 감독은 "2008년에 전국체전을 비롯해 협회장기, 대통령배 단·복식을 독식하며 11개의 금메달을 딸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보유한 선수다"며 "공이 안 맞으면 혼자 남아 연습을 할 정도로 성실하고 체격조건도 좋은 만큼 우리나라 정구의 대들보로 맹활약할 것이다"고 밝혔다.

남자단식에서 금·은을 가져간 한국 정구는 여자 단식에서 은메달과 동메달을 각각 하나씩 추가하며 선전했다.

남자단식 결승에 앞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

순위	국가	금	은	동
1	중국	87	36	35
2	한국	28	21	30
3	일본	17	39	34
4	북한	5	7	10
5	대만	4	5	15

에서는 김예경(22·농협중앙회)이 중국 자오레이에게 1-4(4-2 0-4 2-4 1-4 1-4)로 져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예경은 첫 게임을 따냈지만 두 번째 게임 서브에서 풋볼트를 받은 뒤 페이스가 흔들리며 내리 4게임을 내렸다.

혼합복식 금메달리스트 김경련(24·안성시청)은 준결승에서 자오레이에게 3-4(2-4 1-4 4-2 1-4 4-0 4-1 3-7)로 분패해 동메달에 만족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호자종목 사격 10번째 금 명중 태권도 '노·골·드'

함평출신 장대규 25m 권총 단체...홍성환 2관왕

전날 하루 금메달 행진을 쉬며 숨을 고른 한국 사수들이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25m 스탠더드 권총에서 금메달 2개를 한꺼번에 캐냈다. 전남의 아들 장대규(34·서산시청)는 후배들을 이끌며 금메달 획득에 힘을 보탰다.

장대규는 17일 광저우 아오터 사격관에서 열린 대회 다섯째 날 25m 스탠더드 권총에서 570점을 쏘 575점을 명중시킨 홍성환(27), 황윤삼(27·이상 서산시청)과 함께 1708점을 합작해 2위 중국(1707점)과 3위 북한(1690점)을 누르고 우승했다.

홍성환은 개인전에서도 573점을 쏘 북한의 김정수(33)와 570점의 중국 진종터를 각각 2위와 3위로 밀어내고 금메달을 목에 걸어 2관왕이 됐다.

월야중-목포기계공고-동신대를 졸업한 장대규는 본선에서 중국의 진종터 등 다른 선수 3명과 똑같은 570점으로 공동 3위에 올랐지만 순위를 가리기 위한 경사(숏오프)에서 뒤져 아쉽게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다.

여자 소총 사수들은 은메달을 추가했다. 이윤채(28), 나윤경(28·이상 우리은행), 권나라(23·인천남구청)가 조를 짰 여자 소총 대표들은 이날 오전 여자 50m 소총 3자세 본선에서 함께 1728점으로 1위 중국(1733점)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다. 남자 10m 러닝 타겟에서는 동메달이 나왔다. 정유진, 조세중, 황영도가 함께 1121점을 쏘 박명원, 조영철, 김지성이 나선 북한(1141점)과 중국(1135점)에 이어 단체전 3위에 올랐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금메달 뒷밭' 한국 태권도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첫날부터 위기를 맞았다.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태권도 종목 첫날인 17일 출전한 3체급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지 못한 것이다.

금메달 기대주 박용현(19·용인대)은 이날 광저우 공동체육관에서 치러진 대회 남자 87kg급 결승에서 2006 도하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유세프 카리미(이란)에게 3-4로 석패해 은메달을 목에 거는데 그쳤다.

장경훈(수성구청)은 대회 남자 74kg급 1회전에서 알레자 나스라자다니(이란)를 만나 몸통 공격을 잇달아 허용하며 1-4로 패했다.

또 여자부 46kg급에 출전한 황미나(동아대)도 1회전에서 황선양(대만)에게 4차례 경고를 얻어내 2점을 얻었지만 두 차례나 얼굴을 가격당해 2-6으로 완패했다. /연필뉴스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SINCE 1982

*매우 잘 들립니다. *안보입니다.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총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목포점 (061)262-9200
익산점 (063)851-2422

